

故 無涯 李光魯교수님을 기리며

In memory of Muae, Professor Lee Gwangno

문창호 Moon, Changho (군산대 명예교수 및 ㈜건축사사무소 균형 대표)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1세대 병원건축가를 소개하는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필자의 이광노교수님과 인연은 학부 때(1974-1978) 건축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대학원 석사과정(1978-1980)의 지도학생으로 공부하였고, 대학원 박사과정(1985-1989)에서 교수님의 연구를 보조하면서 지속되었다. 당시 석사과정 때는 시간이 되는데로 무애건축연구소에 나가서 실무도 익혔고, 박사과정 때는 조교로 연구 및 교육 보조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교수님은 당시 50-60대로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였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하거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하니, 교수님 활동의 아주 일부가 될 수밖에 없음이 한계일 것이다.

1. 약력(1928-2018)



[그림 1] 회갑작품집 제작 당시 사진

www.kci.go.kr

교수님의 약력은 [표 1]과 같은데,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1928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다. 교통부, 서울시에서 근무하셨고, 1954년 미국 뉴욕의 아이엠페이 건축사무소에서 연수한 것이 건축가로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재단에서 실무를 하면서 1955년 무애건축연구소를 설립하셨다.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1993년까지 근무하고 이후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1983년 일본 동경대학에 교환교수로 다녀오셨는데, 이때 동경대학 건축학과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셨다. 귀국 후 서울대에서 석박사를 교육하고 배출하는데 운영 방식을 많이 참고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실의 정기적인 세미나 및 현장 조사 등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실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원활하게 배출되었다.

1986년 대한건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축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건축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또한 1994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건축가협회(AIA) 명예 회원이 되셨다.

[표 1] 약력

연도	내용
1928	경기도 개풍군 출생
1945	경북중학교 졸업,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공학과 입학
194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문부수료
195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51~1953	교통부 시설국 건축과 기사
1953~1954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연구원
1954~1955	미국 뉴욕 아이엠페이건축사무소연수
1955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 석사 학위 취득
1955~1956	한미재단주택건설부건축기사장
1955~1978	무애건축연구소 소장
1956~199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983~1984	일본 도쿄대학 교환 교수
1986~1988	대한건축학회 제22대 회장
1994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종신회원) 미국건축가협회(AIA) 명예 회원
1999	'건축 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위원장
2018	별세

2. 수상 실적

[표 2] 수상 실적

연도	내용
1949	대구시청사신축 현상설계 1등 당선
1952	국군 충훈탑 건립 현상설계 및 유엔전우탑건립 현상설계 1등 당선, 교통부장관 표창
1955	서울특별시 의사당 신축 현상설계 1등 당선
1956	남대문교회신축 현상설계 3등 당선, 충주비료공장 외국인사택및 주택현상설계 2등 당선
1957	제6회 대한미국미술전람회건축부 특선
1958	경상북도 도청사건축 현상설계 3등 당선
1959	유네스코 한국회관신축 현상설계 특선
1962	부산시민회관 신축 현상설계 2등 당선
1963	철도청 부산 민중역사신축 현상설계 1등 당선, 중앙청 동별관신축 및 관아 지구계획 현상설계 1등 당선, 건설회관 신축 현상설계 가작 입선,제일은행 청계지점현상설계 1등 당선
1968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
1988	서울시 문화상(건설부문)
1989	대통령 표창(공로상)
1991	보관문화훈장
1996	대한민국예술원상
2011	제1회 자랑스러운 경북인상특별상

교수님의 다양한 수상실적은 [표 2]와 같은데, 주요 건축 관련 내용을 정해보면, 1949년(당시 21세) 대구시청사신축 현상설계에 뛰어들어 당선되는 등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내셨다. 서울특별시 의사당 신축 현상설계 당선, 철도청 부산 민중역사신축 현상설계 당선,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선 등을 이루어 냈다. 국회의사당 설계를 진행하면서 검직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설계자를 하대하는 등의 건축풍토로 인하여, 본격적인 설계자보다는 대학교수 쪽으로 활동의 방향이 정해졌던 것 같다.

3. 병원건축 작품

3.1 서울대학교 병원(1969-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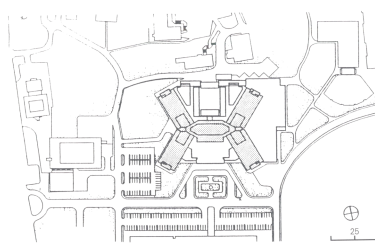
■ 개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지상 13층,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조. 연면적 88,738㎡. 병상수 1,000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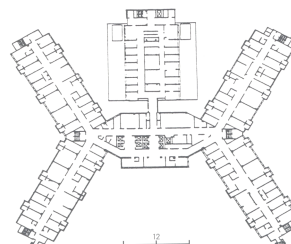
당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현대적인 병원건축 프로젝트로서, 무애건축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계약하였고, 미국 "China Medical Board"라는 재단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설계 초기에 무애건축은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설계 직원을 병원 현장에 상주시켰고, 미국 Whiting Associates International(건축사사무소)은 상주 건축가를 파견하여 원활한 병원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였다.



[그림 2] 병원 전경



[그림 3] 배치도



[그림 4] 기준층 평면도

서울대학교병원 건축계획의 특징으로는 다인 병실을 포함하여 모든 병실에 화장실을 둔 것, 수술장 입구, 중앙소독공급실, 세탁실 등에서 Clean zone과 일반 zone을 확연히 구분한 것, 외벽을 Pre-cast concrete frame을 조립하여 처리한 것, 기송관(Pneumatic Tube System)을 설치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3.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1963-1966)

■ 개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지상 8층,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 타일, 노출콘크리트. 연면적 16,640㎡.

www.kci.go.kr



[그림 5]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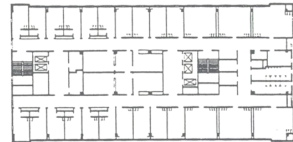
3.3 전남대학교 병원(1970-1973)

■ 개요

광주 동구 학동. 지상 11층, 지하 1층. 철근 콘크리트조, 본타일, 노출콘크리트 연면적 29,101㎡. 병상수 600병상



[그림 6] 병원 전경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그림 7]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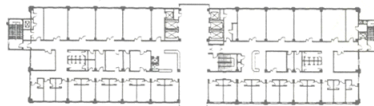
3.4 영남대학교 병원(1981-1983)

■ 개요

대구 남구 대명동. 지상 13층, 지하 3층. 철근 콘크리트조, P.C판 위 외장타일 연면적 42,762㎡. 병상수 850병상.



[그림 8] 병원 전경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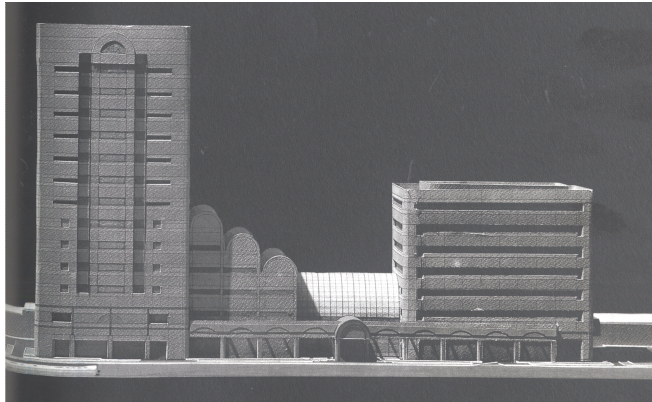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그림 9]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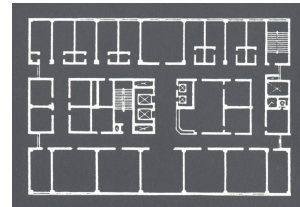
3.5 한효성인병원센터 기본계획(1987)

■ 개요

서울 서초구 역삼동. 지상 13층, 지하 5층. 철근 콘크리트조. 세라믹코팅 강판, 연면적 55,826㎡. 병상수 300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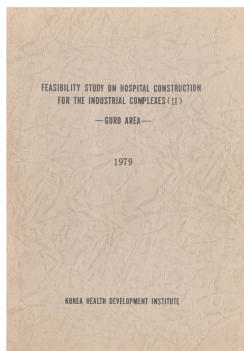


[그림 10] 병원 전경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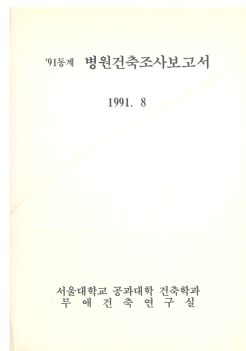


[그림 11]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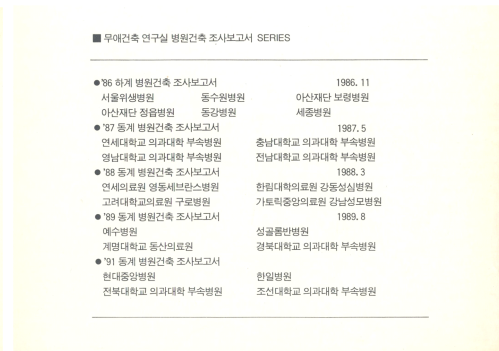
4. 병원건축 연구



[그림 12] 독일 차관 병원 건립 타당성 연구



[그림 13] 병원건축 조사 보고서



[그림 14] 병원건축조사보고서 시리즈 (1986-1991)

4.1 독일 차관병원 타당성 연구

무애연구실은 1979년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기 위한 타당성 연구의 건축 부분에 참가했다. 컨설팅 기관인 독일 병원건축 전문가가 요청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병원건축 시설 현황을 조사했다. 군산 개정병원을 비롯하여 9개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기본적인 면적 자료를 작성했다.

파견된 독일 병원건축 전문가와 함께 독일 기준과 우리나라 병원의 기본자료를 참고하여, 차관병원의 건축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즉, 병원 건축 스페이스 프로그램, 단위 병실, 공정표, 기본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을 제안하였다. 당시 차관병원은 공업단지인 구로지역, 반월지역, 여주지역 3개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그림 12] 참조).

당시 현금차관의 비효율성이 제기되어, 현물차관이 바람직하다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영문 보고서는 한국보건개발연구원(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에서 주관하여 사회-경제 현황, 질병의 패턴, 병원건립의 목적, 대상병원 지역의 인구, 병상 규모, 의료프로그램, 스페이스 프로그램, 건립계획, 관리 계획, 인력 계획, 장비 및 가격 추산, 투자 계획, 경제성 분석 등 병원건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팀에는 건축뿐만 아니라 보건행정, 의료장비, 재정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4.2 병원건축조사 및 연구

1984년 교수님의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교환교수 이후, 매년 주거건축(농촌주택, 도시주택 등)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참고하여 병원 팀에서도 병원건축조사를 시작하였다. 적절한 조사표 작성이 관건이었다. 주요 내용은 각 부서의 운영 방식, 담당 직원의 구성, 진료/업무/작업의 흐름/내용/범위, 타 부서와의 관계, 공간적인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설과로부터 도면을 구하여 동선 및 면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1986년 여름, 1987년 겨울, 1988년 겨울, 1989년 겨울, 1991년 겨울 등 5차례(18개 병원) 시행되어서 병원건축조사보고서가 발행되었다([그림 13] 및 [그림 14] 참조).

교수님께서서는 답사병원을 섭외하고 실태조사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셨다. 또한 외부 연구비 없이 모든 비용은 교수님 사비로 지원해 주셨다. 당시 정보를 공유하고자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 이 보고서를 배포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연구실 내에서도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원건축 관련 논문을 작성하여 많은 석사(11명)와 박사(5명)가 배출되었다. 이는 연구실 전체 석박사 배출 인원의 15%정도를 차지한다.

5. 맺음말

교수님의 활동과 지도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 한국 건축의 여러 분야에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찬란한 첫 장을 도전적으로 열어간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셨다.
- 어떤 경우에도 질타보다는 칭찬으로 뒷바라지 해주는 스승이셨다.
- 제자들을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나는 풀이 아니라, 햇볕 아래에서 자유롭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도록 가르침을 주셨다.

필자는 2015년 6월 교수님의 호출을 받고 찾아뵈었다. 광화문 사무실에서 반갑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회의사당 건립 40주년 행사에 설계자로서 다녀오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여러 근황을 말씀해 주신다. 교수님 회갑 때 조교로서 작품집 만드는데 주관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하신다. 조만간 열릴 가족 행사인 미수연에도 초청하셨다.



당시 예술원 회원으로서 매년 2 작품씩 건축설계를 진행하신다. 사무실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간 완성한 여러 작품도 보여주셨다. 당시도 사무실에서 제도판을 펼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박물관 설계도 진행하신다.

[그림 15] 2015년 6월 교수님과 함께

근처 호텔의 중국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다. 무애건축 출신, 대학 연구실 출신, 가족 이야기로 긴 시간 이야기가 이어졌다. 건강 상태가 약간 악화되어서 식사를 원활하게 못하시는 점이 안타까웠다. 교수님 사무실 앞에서 셀카로 사진을 찍고, 또 연락드리기로 하면서 헤어졌다. 이것이 이승에서 마지막 뵈는 기회가 되었다.

무애 이광노교수님은 미지 세계에 대한 진취적인 개척정신, 건축계나 타 분야의 누구와도 원만한 대인관계, 참석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내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제너럴리스트이면서도 특정 분야 스페셜리스트의 모습, 건축가가 어떤 분야보다 최고의 전문직이라는 자부심 고양, 제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스승, 늘 온화하며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 등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건축계에서 오래 오래 기억될 것이다.

참고자료 : 무애 이광노 건축 작품집(2015.7), 이광노교수님 추모영상(2018.6)